



김신애(감신대)

## 1. 들어가는 글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셈(יָד בִּשְׁמֵרָה)<sup>1)</sup>에 가 보면 1930년대 독일 어느 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다.

사진 1.<sup>2)</sup>



1) 박물관 이름인 야드 바셈(יָד בִּשְׁמֵרָה)은 이사야 56:5의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יָד בִּשְׁמֵרָה)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에서 기원한 것으로, 홀로코스트로 죽어간 자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https://www.yadvashem.org/>의 collection, photo archive 26326.

사진 속 표지판에는 "Juden sind hier nicht erwünscht!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환영 받지 못함)"이라고 써어져 있는데 그 담장 너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이 세워져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 한 것인가? 오늘 날 야드 바셈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한 풍자를 곧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있던 이가 사실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단순히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이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사실 성서를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었고 그 배경도 히브리 문화이며 전승도 히브리적인 것이다.<sup>3)</sup> 성서는 근본적으로 히브리적 현실관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사교한다는 것은 곧 히브리적으로 사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경숙 교수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생겨난 종교임”을 강조하며,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음”을 주장한다.<sup>4)</sup>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교란 무엇인가?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종교이자 삶의 방법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유대교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이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은 유기적 성장과 발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이와 같은 이해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유대인의 삶의 방법을 단일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특히 중요한 시대들을 매우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대 역사 가운데 깊은 영향을 미친 때로는 지진보다도 더한 격렬한 결과들을 가져 온 극적인 혁명들과 비극적인 과국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

3) David Stern, *The Jewish New Testament* (Clarksville: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Inc., 1989) p.ix.

4)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제15권 제1호 통권31집, (2009.3), 170-171.

특별히, 유대교가 획일화 되지 않았던 시대와 유대교와 유대 역사 그리고 또 한 기독교에도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긴 주요한 파국이 일어났던 시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정연호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대교라고 할 때, 이는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주 후 70년 제 2 성전이 파괴된 후 요하난 벤 자카이(Yohanan ben Zakai)를 비롯한 랍비들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한 랍비 유대교를 일컫는다”고 정의한다.<sup>5)</sup> 포로기 이후 유대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파, 옛세네-쿰란 종파의 수도원적·이원론적 영성 운동 등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예수를 따르던 그룹도 당시 여러 종파 중 하나였다. 더욱이 주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교가 ‘희생제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기도, 금식, 구제를 고안해 낸 것은 예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유대교는 포로기 이후 신구약 중간시대, 랍비시대, 중세와 근세 19세기의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는 정통 유대교, 보수적 유대교, 개혁주의 유대교가 있다. 본 논문은 구약과 신약의 사상적 배경과 삶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 제2 성전 시대까지의 유대교로 그 연대를 제한한다.

이 논문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근간이 되는 성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 지금까지 소극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다루어져 온 히브리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몇 가지 예들을 성서적 기반을 통해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유대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독교가 히브리 유산을 상실하게 된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에 대한 초대 교부들의 이해와 가르침을 살펴 보겠다.

5) 정연호, “구약 성서와 유대교의 속죄와 제사”, 『구약논단』 제16권 제1호 통권35집, (2010.3), 161.

## 2. 히브리 성서에 대한 초대 교부들의 이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산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약”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서, 타낙(תנ"ך)이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인 타낙(תנ"ך) 과 브리트 하다샤(ברית הרשה/신약)를 합친 것이다.

성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견해는 정경 문제, 사본학적 문제, 해석학적 문제, 실천신학적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종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유산들을 무시하며 그것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크 크뤼제만(Frank Crüsemann) 교수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하여 기독교의 이해를 네 가지 유형들로 소개 한다: ‘거절,’ ‘대조,’ ‘그리스도 증거,’ ‘상대화와 선별’이 그것이다. ‘거절’ 모델은 구약은 기독교 경전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구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조’ 모델은 신약이 구약에 반대되는 것으로, 옛 것/새 것, 율법/복음, 부정/정결, 보복/은총, 유대인/예수로 대조 시키는 입장이다. ‘그리스도 증거’ 모델은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화와 선별’ 모델은 구약성서를 보다 주목하고 그 위치를 회복시켜야 하지만, 여전히 신약 성서가 조금 더 우위라는 입장이다.<sup>6)</sup>

지금도 적지 않은 기독교들이 유대교의 타낙(תנ"ך)에 대하여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요 은혜의 시대, 곧 새로운 언약, 브리트 하다샤(ברית הרשה/신약)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명령과 축복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 새로운 언약, 신약의 계승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김이곤 교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시작한 구약성서의

6) 김리교신학대학교 성서학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강연 (2004년 9월).

‘옛 것들’(רשנות 리쇼넛; 출애굽, 시내산 계약, 다윗 왕조 등)은 그것의 ‘성취’를 향한 구속사적 섭리의 여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부활은 바로 그 약속된 구원사의 성취로서의 ‘새 것’(החדש 하다사)임을 강조한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불가분리적 통일성을 확인한다.<sup>7)</sup>

한편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러한 경향은 이미 초대 교부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들은 주 후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유대인들의 흩어짐으로 이어진 유대 민족의 패망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다. 초대 교부들에게 주어진 과업은 그럼 이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문제였다. 교부들의 반유대적인 입장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성서를 기껏해야 낡은 것으로 보도록 강요했다.<sup>8)</sup> 또한 그들은 알레고리(Allegory)를 통해서 구약성서를 영적으로,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였다.<sup>9)</sup> 나아가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c. 100-c. 165)은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옛 것과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트리포에게 성서는 “당신네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0)</sup>

교회가 그 뿌리인 유대교로부터 잘라져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들의 성서, 타낙(תנ"ך)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타낙’(תנ"ך)은 ‘구약’으로, ‘토라’(תורה)는 ‘오경’으로, ‘테힐림’(תהלים)은 ‘시편’으로 바뀌었다. 교회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분노의 책과 사랑의 책,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 약속과 성취와 같은 개념들로 교회를 그 뿌리로부터 단절시켰다. 나아가 신약이 구약을 능가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구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7) 김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이해”, 『구약논단』 제13권 제2호 통권24집, (2007.6), 33-34.  
 8) Origen, *Against Celsus*, 2. 8.; Hippolytus, “Expository Treatise Against the Jews”; Tertullian, “Against the Jews”; Chrysostom, *Adversus Iudaeos* 1.3.1: 1.4.1. *The fathers of the Church: Saint John Chrysostom*, vol. 68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79).  
 9) 로즈매리 류터, 『신앙과 형제 살인.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뿌리』 (장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8-254. 원제는, *Faith and Fratricide - The Theological Roots of Anti-Semitism* (Wipf and Stock 1996).  
 10)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A Jew*, 29. 2.

뉘앙스와 의도는 이제는 지나가 버린 언약과 계약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1)</sup> 하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는 기독교인들이 그 언약을 ‘옛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 3.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서 읽기

그렇다면 신약 성서는 어떠한가? 신약 성서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다. 예수와 사도들 모두 구약 성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마 5:17-18; 요 10:35; 딤후 3:14-17, 벧후 1:20-21). 구약을 폐기한다면 신약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분리할 수 없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약 공동체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구약성서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가 유대교에서 생성된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신약성서 사상에서 교회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확장이다. 존 스폅(John S. Spong)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서는 히브리인의 책이며, 그것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히브리인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인의 눈과 삶에 대한 ‘히브리인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sup>12)</sup>

신약 성서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유대/히브리 배경 또는 관점으로 번역되는 것이 늘어났다.<sup>13)</sup> 그것은 중요한 일인데, 학자들 가운데 신약 성서의 유대

11)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 of Sardis, A.D. 175년경)인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4.26.13-14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는 옛 계약 [Old Covenant, Greek, *ta tēs palaiās diathēkēs biblia*] 책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는데, 그 목록을 지금 당신에게 보낸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에 이르렀을 때 그 용어는 이미 전통이 되었다.

12) John S. Spong, *This Hebrew Lord* (New York: Seabury Press, 1974) 31.

13) Hugh J. Schonfield의 *The Original New Testament: A Radical Translation and Reinterpretation* (San Francisco: Harper& Row, 1985. 이 책은 그가 1955년 출판한 *The Authentic New Testament*을 수정한 것이다)이 시작이 되었다.

적 문화와 언어적 뿌리(히브리어, 아람어)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바람직하게 분석하고 번역하며 저자의 본래 의도를 반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sup>14)</sup>

그렇다면 무엇이 유대적/히브리적 관점인가? 그것은 성서의 유대성을 복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유대인의 책이고 유대인에 의해서, 대부분이 유대인에 대하여, 그리고 우선 유대인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sup>15)</sup> 왜 그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의 모든 저자들의 일차적 성향을 동방의 셈족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유대 문화적 환경에 있는 성서 저자들의 생각에 붙여 넣었다. 따라서 유대적 사고 방식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 이해를 뒤엎는 것이다.<sup>16)</sup>

칼 바르트(Karl Barth)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더불어 유대인이 될 준비를 하지 않고는 성서는 바르게 읽혀지거나 이해되거나 연구 될 수 없다.<sup>17)</sup>

월터 부르크만(Walter Brueggemann) 역시 기독교 영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편을 읽는 것에 대하여 시편의 유대인다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

---

14) 신약성경을 유대적/히브리적 관점에서 번역한 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Hugh J. Schonfield, *The Authentic New Testament* (Mass Market Paperback, 1955)와 *The Original New Testament* (Harper & Row, 1985); David Stern, *The Jewish New Testament* (Clarksville: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Inc., 1989); Heinz Cassirer, *God's New Covenant* (Eerdmans Pub Co., 1989); James Trimm, *Hebraic Roots Version "New Testament"*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Nazarene Judaism, 2001).

15) Stern, *The Jewish New Testament*, p.ix.

16) John Dillenberger, "Revelational Discernment and the Problem of the Two Testaments," in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ed. Bernhard W. Anderson (reprinted,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9) 160.

17) Karl Barth, *Church Dogmatics*, trans. Geoffrey W. Bromiley, et al. (Edinburgh: T. & T. Clark, 1956) 1/2:511.

한다.<sup>18)</sup>

## 1. 예수의 유대성 이해하기

삿갓을 쓴 예수를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1906년에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이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를 현대 거의 모든 분야의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자신들과 닮은 모습으로 가정하여 표현해 왔다고 지적한다.<sup>19)</sup>

우리는 예수의 유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는 토라를 지키면서 자랐고 유대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가르쳤다. 따라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sup>20)</sup> 예수는 동시대의 유대교 틀 안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예수는 유대인이었다.<sup>21)</sup>

1930년에 클라우트 몬테피오르(Claude J. G. Montefiore)는 랍비 문헌과 복음서의 가르침을 출판하였다.<sup>22)</sup> 이 책에서 그는 예수가 랍비들의 문헌과 다른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수정하였을 뿐이라는 초기 유대교 학자들의 입장을 증명하였다. 몬테피오르의 말대로 예수의 말씀 대부분을 분리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탈무드(Talmud)와 미드라شم(Midrashim)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종합한 것과 유사한 것

---

18) Walter Brueggemann, "Christians in Jewish Territory," in *Praying the Psalms*, ch. 4.

19) Albert Schweitzer의 *Von Reimarus zu Wrede: Eine 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 (Tübingen: Mohr, 1906; *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 later several editions*이라는 새 제목으로 1913년에 두번째 편집되었다; *Siebenstem-Taschenbuch* in two volumes [77, 78], Munich/Hamburg: dtv, 1966); 영어 번역: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Reimarus to Wrede* (New York, 1910; several later editions, e.g., A. & c. Black, 1954)은 가장 최근에 출간된 것이다.

20) David Flusser, *Jesus* (The Hebrew University, 1998).

21) N. T. Wright, "The Historical Jesus and Christian Theology" in *Sewanee Theological Review* 39, 1996.

22) Claude Joseph Goldsmith Montefiore, *Rabbinic Literature and Gospel Teachings* (London: 1930; reprint, New York: Ktav, 1970).



을 다른 곳에서는 만족스럽게 찾을 수 없다. 전적으로 개인과 관련한,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메시지의 격렬함은 예수만의 독특한 것이다. 사회 안의 주변 계층들을 향한 예수의 태도 또한 매우 독특하다. 그는 어린이들, 여성들 그리고 죄인들을 동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대하였다. 데이비드 플루서(David Flusser)도 예수의 독특성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예수의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도 고대 유대 문헌들로부터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23)</sup> 다시 말해서, 원래 예수가 말한 대부분의 것들은 그가 전통적인 가르침과 사상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특유의 가르침 중 일부는 그를 다른 이들과 구별시키는 새롭고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약 성서의 가르침 가운데 신구약 중간기 유대 문헌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 플루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산상수훈이 에세테파의 가르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찾아낸다:<sup>24)</sup>

<p>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3-5)</p>	<p>에세네 설교자는 온유한 자들에게 당신의 넘치는 자비를 선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구원하심을 듣게 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포할 것이다(1 QHa 18,14-15).</p>
--	---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진정한 경건자들이다. 외경인 열두 족장들의 증언 중, 유다의 증언(25, 4-5)<sup>25)</sup>도 산상수훈(마 5:10-11)과 거의 흡사하다:

23) Flusser, *Jesus*, 90.

24) Flusser and R. Steven Notley, *The Sage from Galilee. Rediscovering Jesus' Geni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69.

25) R. H. Charles,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Apocryphile Press, 2004).

<p>슬픔 가운데 죽는 이는 기쁨 안에서 살아날 것이며, 주를 위하여 가난한 자는 부요케 될 것이며,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야콥의 심령이 즐거움으로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독수리들이 기쁨으로 날 것이며, 모든 백성이 주께 영원히 영광 돌릴 것이다(유다의 증언 25, 4-5).</p>	<p>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0-11).</p>
---	---

이 밖에도 산상수훈의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사상을 1QS 10, 17-20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26)</sup>

<p>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마 5:38-39)</p>	<p>나는 누구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לֹא אֲשִׁיב לְאִישׁ נְמוּל רַע), 각각 선함으로 대할 것이다 (בְּטוֹב אֲדַרְךָ נְבוֹר);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그 분이 각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 행악하는 자의 부요를 탐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수의 날까지 논쟁(רִי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악한 이에게 화를 거두지 않을 것이며, 심판의 날까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1QS 10, 17-20).</p>
---	---

위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가 당시 에세네파의 가르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한편, 예수 당시의 율법 준수와 생활상을 안다면 신약성서를 읽고 해석함에 있어 좀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20절(cf. 눅 8:44)에서 열 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가 만진 예수가 걸은 옷 찌찌트(צִיץִּית, 옷 술)

26) Flusser and Notley, 71-72.

로 민수기 15장 37-39절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의 네 개의 옷 간에 달았던 것이다:

<p>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 (ἱματίου)<sup>27)</sup>를 만지나 (마 9:20).</p>	<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 단 귀에 술(טַבַּיִט)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טַבַּיִט)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민 15:37-39).</p>
---	---

한편, 마태복음 23장 5절의 경문은 테필린(תפילין)으로 신명기 6장 8절에 근거한 것이다:

<p>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술을 크게 하고 (마 23:5)</p>	<p>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 6:8)</p>
---	---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 술과 테필린을 감고 기도한다.



사진 2. 위의 사진은 옷 술 (피찌트)이 달린 기도 술 (탈리트)를 입고, 테필린을 이마와 팔에 감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 모습. (김신애 소장)

27) Jewish New Testament는 이것을 히브리어 טַבַּיִט으로 번역하고 있다. David H. Stern, *Jewish New Testament: A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that express its Jewishness* (Jerusalem: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1989) 12.

이처럼 옷 술과 기도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일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는 시칭각 교재로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다.

## 2) 히브리적 성서 암송법

1453년 쿠텐베르크(Gutenberg)에 의해 성서가 글자로 인쇄되기 전까지, 성서의 두루마리들은 손으로 복사되었다. 사본들 역시 널리 유포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 반복하여 말로 전하는 교육법이 발전했다(מִשְׁמָר/미쉬나). 구약 성서도 글보다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출 13:8)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신 6:7).

사실 구약 성서의 대부분이 본래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분명하며, 복음서 역시 예수의 가르침과 기록이 글로 기록되기까지 기억과 암송에 의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은 본문을 암송하기 위해, 평행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조 수단으로 선택했다. 히브리 성경의 삼분의 일이 시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지음 22개를 순서대로 구절의 첫 글자로 사용한 시의 형식 또한 암송에 도움을 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5, 34, 37, 111, 112, 119, 145편, 그리고 잠언 31장 등이다.

## 3) 찬양과 히브리 전통

창세기 29장 35절에서 레아가 유다를 낳은 뒤,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였다. ‘유다’와 ‘유대인’ 두 단어 모두 ‘찬양하다’라는 동사, 야다(יָדָה)에서 나왔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광야 여정에 앞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40년 후 요단강 저편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다시 기쁨의 찬양을 한다(신 32장). 드보라와 바락(삿 5장),

www.kci.go.kr

다윗(삼상 16:16-17), 솔로몬(왕상 4:32) 모두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에서 다양한 악기로 찬양했음을 증언한다.

신약 성서의 누가도 히브리 전통을 따라 예수의 탄생을 노래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의 찬양(눅 1:46-55)과 천사들의 찬양이 그것이다(눅 2:13-14). 예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은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의식(פסח/세데르)에서 사용되는 예식(הגדה/하가다)에 따르면 유월절 만찬 예식의 마지막인 הלל(할렐)은 시편 115-118편과 '대 할렐'(시136편)을 노래함으로써 끝이 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히브리 전통에 따라 유월절 만찬 후 이 시편들을 암송하여 부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고린도 전서 14장 2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시와 찬미로 예배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이처럼 찬양은 히브리 민족의 삶과 예배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 4. 오순절 (שבועות/사부웃)과 성령 강림절 (Πεντηκοστή/펜타코스테)

##### 1) 구약의 절기들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더불어 일곱 개의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바로 그것들이다.

레위기 23장 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

אלה מועדי יהוה מקראי קדש אשר תקראו אתם במועדם

여기에서 보면 절기들을 일컬어 יהוה מועדי (모에데이 아도나이)라고 부르

고 있다. מוֹעֵד(모에드)는 정해진, 약속된 때를 의미한다. 곧 절기들은 하나님  
이 정하신, 약속의 날들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수기 28-29장은 고대 제사장 달  
력인데, 안식일과 각 성일(절기)에 드릴 예물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정하신 시간들이며, 또  
그 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해진 날들이라는 것이다.

후기 유대 전승에서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날로 기억되  
고 있다. 하지만 히브리 성서 어디에서도 오순절이 토라를 주신 날이라고 언급  
하고 있지 않다. 구약 성서에서 오순절과 관련한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출애  
굽기 23:14-19, 34:18-26; 신명기 16장 9-12절; 레위기 23장 15-21절; 민수기 28  
장 26-31절; 역대하 8장 13절.

오순절 חג השבועות(하그 하-샤부웃)은 성서에서 명하는 성전에 오르는 3대  
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데, 신명기 16장 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게 주신 절기들을 되새기는 가운데 오순절을 언급하고 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cf. 출 34:22; 레 23:15-21).

히브리어로 שבוע(쉐바)는 일곱을, שבוע(샤부아)는 주 (week)를, שבועות(샤  
부웃)은 복수로서의 '주들'(weeks)을 의미한다. 따라서 שבועות(쉐바 샤부  
웃)은 일곱 주를 말하는 것이다. 처음 익은 이삭 한 단 עומר(오메르)을 하나님  
께 흔들어 드린 날부터 일곱 주가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을 헬라어로는 오십을 의미하는 펜테코스테(Πεντηκοστή)라  
부른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이 절기의 명칭인 샤부웃(שבועת)과 함께 이것이 추수  
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www.kci.go.kr

וּחַג שִׁבְעַת תַּעֲשֶׂה לָךְ בַּכּוּרִי קִצִּיר חֲטִיִּם וּחַג הָאֵסִיף תְּקִיֵּפֶת הַשָּׁנָ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의 절정에 이르는 이 시기에 수확되는 일곱 종류의 농작물이 있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가 바로 그것들이며(신 8:8) 추수 절기 **חג הקציר** (하그 하카צר, 출 23:16), 또는 초실절 **יום הבכורים** (욘 하-비쿠림, 민 28:26)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에 처음 익은 열매 **בכורים** (비쿠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וּבַיּוֹם הַבְּכוּרִים בְּהַקְרִיבְכֶם מִנְחָה חֲדָשָׁה לַיהוָה בַּשְּׁבַעֲתֵיכֶם מִקְרֵאֲקָדֶשׁ  
יהיה לכם פֶּלֶם־מִלֹּאכֶת עֲבָדָה לֹא תַעֲשׂוּ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8:26).

이처럼 히브리 성서 본문에서는 오순절에 대해 토라를 받은 때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상은 이 사건에 대한 유대 해석들 안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제2 성전 시대의 유대 문헌인 희년서와 쿰란 공동체가 오순절과 시내산에서의 계시 사건을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희년서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반부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6:17-19).<sup>28)</sup> 희년서는 오순절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과, 그리고 그것의 갱신과 관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희년서 1장 1-4절에서 다시 씌어진 출애굽기 24장 12-18절에서 희년서의 저자는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희년서 6장 17절은 오순절과 관련하여 그 날에 시내산에서 토

28) 기원전 2세기 중반에 히브리어로 씌었다. J. C. VanderKam, *Textual and Historical Studies in the Book of Jubilees* (HSM 14;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7), 207-85.

29) J. T. A. G. M. van Ruiten, "The Rewriting of Exodus 24:12-18 in Jubilees 1:1-4," *Biblische Notizen* 79

라를 받은 것보다는 언약(Covenant)과 그것의 갱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이유로 하늘 책에 기록되기를, 그들은 매년 이 달에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쿵란 문서들에서도 발견된다. 공동체의 규율책(The Rule of the Community)인 1QS 1, 16-3, 12는 쿵란 공동체의 회원들의 공동체 입회를 위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sup>31)</sup>

많은 학자들은 유대교의 오순절과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 사이의 연결이 미약하거나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대 절기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인 견해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롤랑 드 보(Roland de Vaux)의 글을 살펴보자:

유월절과 같이, 오순절은 결국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매우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시내산에서의 계약과 오순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희년서(Book of Jubilees)인데, 구약성서에서(노아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계약들을 오순절에 다루고 있다. 쿵란 종파 또한 자신들을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로 불렀으며, 오순절에 계약의 회복을 축하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다.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항상 두 번째로 중요한 날로 여겼다. 그것은 에스겔 45:18-25의 달력에서 생략되었으며, (전례 본문들과 별개로) 오직 구약성서의 후반부와 다른 몇 군데에서만 언급되고 있다(2 Macc 12:31f, 그리고 Tob 2:1). 미쉬나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연중 절기들에 대한 완벽한 보고를 하고 있다.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

---

(1995), 25-29.

30) G. Kretschmar, "Himmelfahrt und Pfingsten," ZKG 66 (1954/1955), 224-227 at 209-53.

31) G. Vermes,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5<sup>th</sup> ed.: New York: Allen Lane, Penguin Press, 1997).



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개념은 오직 A.D. 2세기에 이르러서야 랍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한편,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은 처음부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의 선물과 열방을 새로운 교회 안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말하자면 유대교 절기 예배의 옛 방식은 이제 지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속되었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성령 강림절과 쿤란 공동체, 또는 후대의 정통 유대주의가 이해한 오순절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사도행전은 시내산에서의 계약이나 중보자 그리스도의 새 계약에 대한 어떤 암시도 포함하지 않는다.<sup>32)</sup>

이에 반하여 모세 와인펠드(Moshe Weinfeld)는 오순절에 새롭게 갱신된 계약 개념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CE 2세기 경의 문서인 희년서와 사해 문서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순절은 이미 예수 시대에 토라를 받은 사건과 결합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sup>33)</sup>

그렇다면, 미쉬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력을 들여다 보자. 유월절 다음 첫 번째 날에(니산월 16일), 보리의 첫 번째 단을 예루살렘 밖에서 엄숙하게 베어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 해 보리 수확의 첫 번째 열매로 흔들도록 되어 있었다.<sup>34)</sup> 이 의식은 수확의 계절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그로부터 오순절(샤부옷)까지 50일이 계수되었다. 오순절은 새 곡물로 구워진 두 덩어리의 발효된 빵을 흔들음으로 밀 수확의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 이 빵 덩어리들은 유월절 기간에 먹었던 발효되지 않은 빵 מַצּוֹת(마쯔트)와 비교하여 완전한 것들이었다. 50일째 날의 축제는 곡물 추수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마침을 의

32) Roland de Vaux의 *Ancient Israel*, vol. 2: *Religious Institutions* (New York/Toronto: McGraw Hill Books, 1965) 494-95.

33) Moshe Weinfeld, "Pentecost as Festival of the Giving of the Law" *Immanuel* 8 (1978), 7-18. Weinfeld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34) Weinfeld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M Menahot* 10:2-4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추수 장면을 보이라:

וַיִּנְחֵם וַיִּבְרַח וַיִּבְרַח וַיִּבְרַח...

...waved [the offering] and brought it close [to the corner of the altar]...

미하는 것이었다. 랍비들은 오순절을 “유월절의 종결”이라고 부른다.

## 2) 오순절을 통해 보는 기독교 신앙과 유대적 유산

요한복음의 연대기에 의하면 예수는 바로 성전에서 첫 보리 수확이 바쳐지는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였음을 주목하자. 로마서는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개념을 성령에 적용시키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롬 8:22-23).

이 구절 중 어떤 것도 교회의 절기 주기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기간과 관련이 있다. 그것들은 아마도 쉽게 재해석되고 기독교의 심오한 의미를 주는 유대력에 존재하고 있는 주제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은 유대력에서 50일 기간 동안 곡물의 첫 열매를 축하하는 것과 같은 첫 열매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일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내산에서의 계약을 암시하지 않는다” (R. de Vaux)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약성서의 성령강림 기간과 일치하는 이러한 사상들의 적용은 시내산과 오순절(שבועות)을 결합시켜 해석하는 것이 이미 신약성서 시대에 유대교 사상의 주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경우 회년서(Jubilees)와 오순절 대한 쿰란 종파의 강조는 이 사상의 초기 발전 단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35)</sup>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오순절은 성령강림 사건을 의미한다. 성령이 예수를 따르는 초기 신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대한 회복된 활기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사건 (행 2장)은 1세기 예루살렘에서

---

35)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토리를 받은 날로 해석한 초기 (기독교 이전) 연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Moshe Weinfeld의 "Pentecost as Festival of the Giving of the Law," *Immanuel* 8 (1978): 7-18에서 발견할 수 있다. Weinfeld은 시편50편과81편, 그리고 역대하 15:10-15이 오순절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던 때에 일어났다.

탈무드 전통은 오순절을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는 날로 언급하며, 율법(תורה/토라)을 통해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출 35:18)으로 돌판에 새기신 율법을 받았다면, 오순절에 시내산에 모인 예수를 믿는 이들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졌던 것이다. 오메르를 세는 첫날 부활하신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고전 15:20), 오순절에 성령 받은 예수 공동체는 첫 추수의 열매가 되었다. 유대교 전통에서 샤푸옷(오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사건이 일어난 결혼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메시아 예수님의 신부(계 21:2, 9)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순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성령을 부여 받은 것이다. 예수는 초기 신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오순절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능력이 드라마틱하게 임한 집합점이다. 이름 자체는 단순히 수확을 위한 날인 7주 더하기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오순절은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통해 토라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절정이며,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날이다.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계시한 사건과 성전산에서 교회에게 임한 성령 강림사건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오순절과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을 연결하는 많은 미묘한 경향들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5. 나가는 글

성서 신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을 목도한 자들의 고백이다. 성서의 많은 명령들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데 그것은, “기억하라!”이다. 기억하는 것은 거룩한 행동이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신성하게 한다. 성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

하여 다양한 시칭각 자료들(절기, 옷 술, 암송, 찬양 등)을 사용해 왔음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고,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것은 무척 익숙하지만 옷 술이 달린 기도술을 두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과 성탄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지만, 그 교회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서의 절기를 지키는 일은 어색해 한다.

이 논문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근간이 되는 성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 놓쳐 왔던 유대적 배경을 성서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적 뿌리와 관련하여 기독교 초기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본질을 강조하였다.

## 6. 참고문헌

- 김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 이해", 「구약논단」 제13권 제2호 통권24집 (2007.6), 33-51.
- 로즈매리 류터, 「신앙과 형제 살인.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뿌리」 (장춘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원제, Reuther, R., *Faith and Fratricide - The Theological Roots of Anti-Semitism* (Wipf and Stock 1996).
- 이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제15권 제1호 통권31집 (2009.3), 155-173.
- 정연호. "구약 성서과 유대교의 속죄와 쟁다카", 「구약논단」 제16권 제1호 통권35집 (2010.3), 161-189.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trans. Geoffrey W. Bromiley, et al. (Edinburgh: T. & T. Clark, 1956).
- Brueggemann, Walter. "Christians in Jewish Territory," in *Praying the Psalms*, ch. 4.
- Cassier, Heinz. *God's New Covenant* (Eerdmans Pub Co., 1989).

- de Vaux, Roland. *Ancient Israel, vol. 2: Religious Institutions* (New York/Toronto: McGraw Hill Books, 1965).
- Dillenberger, John. "Revelational Discernment and the Problem of the Two Testaments," in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ed. Bernhard W. Anderson (repr.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9) 160.
- Flusser, David, *Jesus* (The Hebrew University, 1998).
- Flusser, David and R. Steven Notley, *The Sage from Galilee. Rediscovering Jesus' Geniu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 Kretschmar, Georg. "Himmelfahrt und Pfingsten,"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66 (1954/ 1955), 209-53.
- Montefiore, Claude Joseph Goldsmith. *Rabbinic Literature and Gospel Teachings* (London: 1930; reprint, New York: Ktav, 1970).
- Schonfield, Hugh J. *The Authentic New Testament* (Mass Market Paperback, 1955).
- Schonfield, Hugh J. *The Original New Testament: A Radical Translation and Reinterpretation* (San Francisco: Harper& Row, 1985).
- Schweitzer, Albert. *Von Reimarus zu Wrede: Eine 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 (Tübingen: Mohr, 1906; *Geschichte der Leben-Jesu-Forschung; later several editions*이라는 새 제목으로 1913년에 두번째 판집되었다; Siebenstem-Taschenbuch in two volumes [77, 78], Munich/Hamburg: dtv, 1966); 영어 번역: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A Critical Study of Its Progress from Reimarus to Wrede* (New York, 1910; several later editions, e.g., A. & c. Black, 1954).
- Spong, John Shelby. *This Hebrew Lord* (New York: Seabury Press, 1974).
- Stern, David. *The Jewish New Testament* (Clarksville: Jewish New Testament Publications, Inc., 1989).

Trim, James. *Hebraic Roots Version "New Testament"*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Nazarene Judaism, 2001).

Weinfeld, Moshe. "Pentecost as Festival of the Giving of the Law," *Immanuel* 8 (1978) 7-18.

Wright, N. T. "The Historical Jesus and Christian Theology" in *Sewanee Theological Review* 39, 1996.

*M. Menahhot* 10:2-4.

Origen, *Against Celsus*, 2. 8.

Chrysostom, *Adversus Iudaeos* 1.3.1; 1.4.1.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Saint John Chrysostom*, vol. 68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79).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4.26.13-14

Hippolytus, "Expository Treatise Against the Jews."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A Jew*, 29. 2.

Tertullian, "Against the Jews."

검색어

기독교 신앙의 뿌리

히브리 유산

성경 읽기와 해석

유대 배경, 언어, 문화

## The Bible and the Hebrew Heritage: The Continuity of the Two Testaments

ShinAe Kim, Ph.D.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How to read the Bible? We cannot help but read the Bible through the prism of our religious tradition or affiliation. The prism of our time and social location makes a big difference as well. We read the Bible through the prism of our interpretive methods. The prism of theological and historical paradigms we embrace shapes our interpretation.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we have to admit that we read our Bible from our unique context, in a very subjective way. Moreover, a paradigm is a type of a world-view, a system, a model, a pattern. The paradigms affect one's theology on the deepest level and shape one's interpretation of the Bible's message(s). For example, statues 'Ecclesia et Synagoga' at Strasbourg Cathedral (Notre Dame, c. 1235) represent Christianity and Judaism, Church and Synagogue. Church displays freedom, confidence, and authority in contrast to misery, shame, and submission of Synagogue. This paradigm was developed out from the early patristic period into the middle ages and remained as a main view. Its core problem is the supersession (replacement) perspective built on the early Church versus Synagogue

www.kci.go.kr

polemics, the denial of Israel's spiritual inheritance. It is in considerable tension with Romans 9-11.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Bible was written predominantly by Jews and to a Jewish audience at first. It was written in the Hebrew soil and culture. The Bible basically reflects the Hebrew view of reality. And it has been transmitted to the Gentile churches. Indeed, the roots of Christianity run deep into the Hebrew soil. Much of what is written in the New Testament is incomprehensible apart from its Jewish context. For the Christians of the first church, the way of "Christian thinking" meant that of Hebraic thinking.

Then, what does it mean to have the Jewish/Hebraic viewpoint? That is to reintegrate the Jewishness of the Bible. Why is that so important? Because most books of the Bible found their primary propensity in the Semitic culture of the ancient Near East. Though the Hebrew heritage of the Church is rich and extensive, however, the crop of our understanding about the Hebrew heritage and Christian-Jewish relations is quite lean. Therefore, proper reading the Bible and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is required. Most of all, in reading and interpreting the Bible, the inquiry and understanding of Jewish roots is a prerequisite that must be preceded.

In this article,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Hebrew heritage that has been treated so passively or superficially in the understanding of the Bible as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and doctrines. I also enumerated some examples of the Hebrew heritage in the Bible texts and its traditions. Furthermore, I saw the ties of the church as a spiritual child of Abraham with Israel.



Keywords

Roots of Christian Faith

Hebrew Heritage

Reading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

Jewish Context, Language, and Culture.

- 투고일: 2018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8년 10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0일

[www.kci.go.kr](http://www.kci.go.kr)